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①

누실명(陋室銘)

강릉 사천 바닷가 근처, 가파르지 않은 대로옆 호젓한 길을 조금 올라가 야산 중턱에 가면, 교산(蛟山) 허균(許筠)의 외가이자 생가인 애일당(愛日堂)터에 세워진 초라한 석비가 하나 있다. 누실명이라 쓰여진 석비에는 교산이 나이 마흔살 때 쓴 시가 적혀있다.



남송 허건(南農 許建)의 상춘도(賞春圖). 근현대 서화의 대가들은 산골 깊은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초간모옥(草間茅屋)을 그리고 좁은 마루에 앉아 매화를 관상하거나 햇볕을 쬐고 앉은 문사(文士)를 그렸다.

중국 당대(唐代)의 문학가인 유우석(劉禹錫)은 그가 안휘성자사(安徽省刺史)로 있을 때 그가 거처하던 방의 '비좁고 초라한 방'이란 뜻의 누실(陋室)이라 짓고 그 이유를 적는다. 이 말은 공자(孔子)가 그의 제자인 안회(顏回)의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칭찬해서 말한 "덕(德)있는 군자가 그 나라에 있으면 오랑캐의 나라라 하더라도 누(陋)라 말할 수 없다"고 한 말에서 따온 것이다.

그의 누실명을 본 대 교산은 아래처럼 같은 제목의 시를 쓴다.

“방 너비는 열 흙(세평 남짓)쯤인데/ 남쪽으로 문 두 짝을 내니 /한낮 햇볕 들어와 밝고 또 따스하다/ 집은 비록 벽만 씩을지라도/ 책은 고루 갖추었으니/ 남은 것은 잠방이 입은 이 몸/ 탁문군(卓文君, 문장가 사마상여의 아내)을 짝할 뿐일세/ 반 사발 차를 마시고/ 한 자루 향 사르며/한 가로이 숨어 살면서/ 천지고금을 마음에 품었노라. /남들은 누추한 집이라 하면서/ 힘들어 어찌 살까 걱정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신선들이 사는 궁궐일세./마음은 편안하고/몸은 편안하니 /누가 감히 누추함을 말하는가./내가 누추하다 여기는 것은 /몸과 이름이 함께 썩어 가는 것일세. /원헌(原憲, 또는 자사子思, 공자의 제자)은 썩대로 엮은 집에서 살았고/ 도잠(陶潛, 도연명)도 아주 작은 집에 거했다네./군자가 산다면, 어찌 누추함이 있겠는가.”

이 시는 또한 뛰어난 다시(茶詩)이기도 하다. 이 시를 통해 교산이 최초의 한글소설인 흥길동전을 썼을 뿐만 아니라, 다인(茶人)으로서 차를 음미하며, 불경같은 경서를 가까이 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조선조에 몇 안되는 선비다인이기도 하다.

불경을 외다가 관직에서 쫓겨난 적도 여러 번이라 하니, 스님들과 가까이 하면서 차를 배웠음이 틀림없다. 그의 문집인 성소부부고서(惺所覆菴藁序)에 보면,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두보시집을 지니고 낙산사에 올라가 삼년을 살다가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불교는 그의 삶의 지점이었다.

동양 삼국을 전부 보지 않더라도 근현대의 서화의 대가들은 심심산골 깊은 곳에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초간모옥(草間茅屋)을 그리고 좁은 마루에 앉아 매화를 관상하거나 햇볕을 쬐고 앉은 문사(文士)를 그리고 있다.

허균의 생가에 있는 석비 '누실명' 누실명은 안빈낙도를 칭찬해 나온 말 근현대 서화의 대가들도 초가집 그리며 그 곳에 앉아 자연을 벗 삼아

기억나는 우리의 대가들 만해도 의제 허백련 이라든지, 심산 노수현같은 육대가를 비롯해서, 근래에는 소산 박대성 선생이 누옥(陋室)을 그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상당수 남아있는 대가들의 화첩에 보면 거의 초가집을 그리고 그 곳에 앉아 자연을 감상하는 선비나 스님을 그린 그림들을 볼 수 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산이 높지 않아도, 신선이 산다면 명산이요, 절이 누추하다고 해도 세속을 초월한 수좌나 덕망있는 학승이 산다면, 명찰이라는 절이다. 수백억을 들여 불사를 벌여 고루거각(高樓巨閣)을 지어 많은 신도들을 불러 모은다 해도 명리(名利)를 지은 선승이나 맑은 스님이 없으면 깊은 산속 웅담샘 옆에 토굴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매화향기 그윽한 산사에서 맑고 향기로운 차 한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물욕(物慾)을 벗어난 말없는 스님들은 언제나 그리운 도반들이고 선 지식자들이다. 사판(事判)으로 심어 낸 이상을 질 새 없이 살다보니, 언제나 그리운 것은 하늘과 숲이 보이고, 멀리 물가에 기러기 나는 마음의 고향뿐이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육망의 덧

육심 부리면 눈과 마음이 어두워진다. 어두운 눈과 마음으로 허상을 쫓다보면 파멸이다. 한 생각 짙을 때 더 큰 세상이 보인다. 세상의 중심에서 소풍을 즐겨보자.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 ② 조선 운곡종취 선사 '중봉사에서 월성대운 등악 이선생에게 부침(中峯寺寄上月城大尹東岳李先生)'

울림에 조차 고요함을 보태다

中峯寺在啼猿外 (중봉사재제원의) 香閣寥寥出定遲 (향각요요출정지) 帶月小梅寒有影 (대월소매한유영) 侵雲喬木老無枝 (침운교목로무지) 門開絕頂瞻天近 (문개절정점천근) 戶瞰平川覺地卑 (호감평천각지비) 林徑有誰來問疾 (림경유누래문질) 獨敲金磬夕陽時 (독고금경석양시)

원승이 울음 밖에 있는 중봉사 누각은 고요하여 선정에서 나오이 더디다. 달을 띠 어린 매화 차가워 그림자 있고 구름을 능멸한 키 큰 나무 늙어 가지 없네. 문을 산꼭대기에 여니 하늘 가까움을 보고 집에서 평천을 굽어보니 땅 낮음을 깨닫네. 숲길에 어떤 이가 와서 문병하나니 홀로 석양에 경쇠 두드릴 때라네.

운곡종취(雲谷沖微; ?~?) 스님의 171수의 시만 수록된 <운곡집>은 당시 문인으로 알려진 유지들과 수장한 시가 상당부분 차지한다. 발문을 쓴 신익성(申翊聖)은 이수광이나 이안눌과 같은 이들이 서로 수

장한 뛰어난 시인임을 인정하면서 당인(唐人)의 풍치가 있는, 선을 시로써, 시를 선으로써 한 스님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스님은 선시일여(禪詩一如)의 시관(詩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시는 당

대 시문에 뛰어난 이태백에 비유되기도 하는 동악 이안눌(東岳李安訥; 1571~1637)에게 부친 중봉사의 누각에서 보는 자연의 풍경과 그 안에 깃든 자신의 삶을 읊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짐승소리조차 끊어진 중봉사의 고요한 누각은 그 고요함이 깨어지기 쉽지 않음을 보였다. 함련에서는 찬 그림자 띠 어린 매화와 늙어 가지 없는 높이 솟은 나무로 누각 주변의 고요함을 더했다. 경련에서는 다시 하늘과 땅의 대치된 소재로 시선을 수직과 수평의 공간으로 확장시켰다. 미련에서는 해질녘 경쇠 칠 때 누각의 고요함을 흔들며 깨우는 인적소리로 중심점을 전개시켰다. 그 울림조차 고요함을 보태는 스님의 시적 구상이 바로 진정 선시일여의 경지가 아닌가 한다.



원법 스님(문사·문학박사)



수불 스님과 함께 한 중국 강호江湖 12 선찰禪刹 순례기

행복하는 선여행 글·정찬주

\*신국판 변형, 304쪽, 윗판, 15,000원 사진가 유동영의 생생한 사진으로 공간의 역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과학시대가 바로 禪의 황금기

불교적 사유로 응송깊은 글을 써온 소설가 정찬주가 선의 황금시대를 연 중국 강호(장시 성과 후난 성)의 대표적 선사들이 주석했던 열두 사찰을 순례했다. 안국선원 수불 선원장 스님과 그 제자 불자들이 함께한 순례에서 순례일행은 천 년의 시공을 넘어 선사들과 조우하며 행복한 구도의 향연을 펼친다. 저자는 아인슈타인이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정신 모두의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인 불교야말로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라

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수불 스님의 말씀대로 선의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공간의 제약을 넘어 쉽게 옛선사들의 발자취를 접할 수 있는 21세기 과학시대가 바로 선의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일주일만 앓을 수 있으면 당신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 책은 4세기에 걸친 선의 황금시대 진면목을 저자의 뛰어난 안목과 수불 스님의 친절해설을 통해 보여주며, 순례 일행의 선 체험 이야기와 함께 일주일만 앓을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전광석화 같은 수불 스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수불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저자 정찬주. 수불 스님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조사와 공간의 역사 현장에서 수시로 법석을 펼치며 순례일행의 눈을 열어주었다.



\*신국판 변형, 336쪽, 윗판, 15,000원 사진가 윤명숙의 생생한 사진으로 공간의 역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 글·정찬주

초조 달마에서 육조 혜능, 조주, 임제, 운문선사의 벽라같은 깨우침 중국 10대 선사의 삶과 자취를 따라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광둥廣東까지 광활한 중국 대륙 2,000Km를 세 차례 종단한 소설가 정찬주의 혼이 담긴 禪순례 이야기. 현장에서 취재한 새롭고 친절할 禪입문서

